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광주 상무지구 금요일시장 폐쇄

“교통 불편·경관 훼손” vs “20년 터전 단속 안돼”

서구청-노점상 입장 팽팽

광주 상무지구 한복판에 20여 년간 터잡아 각종 먹거리를 팔아오던 노점상인들이 광주 서구청의 대대적인 노점상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는 금요일이면 수백 명의 상인들이 상무지구 인도를 차선 일부를 점령하면서 보행 불편과 교통 방해는 물론 도심 미관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일 광주 서구청을 찾은 노점상인들은 이마트, 롯데마트를 비롯한 각종 유통매장이 들어서기 전 신선한 먹거리를 구하기가 마땅찮은 시절부터 주민들에게 채소와 과일, 곡물 등 각종 먹거리를 제공해왔고 현재도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3년 노점상인 38명이 금요일이면 상무지구 인도 한구석에서 좌판을 펴고 시작한 것이 상무 금요일시장의 시초였다고 한다.

상무지구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에도 주민들의 호응이 계속되면서 노점상 숫자와 취급 상품이 늘어나는 등 덩치가 커졌다. 매주 금요일이면 상무지구 한국은행 맞은편 도로(①구간 240m)와 중흥아파트·한국아파트 앞 도로(②구간 510m), BYC건물~라인아파트(③구간 360m) 등 3개 구간에 250여 명이 좌판을 열고 있다.

상무 금요일시장의 활성화는 공공요금에도 노점상인들에게 부대방으로 돌아왔다.

광주시청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상점이 밀집한 광주 최고의 도심에 노점이 번성하자 상인들의 차량과 물건을 사려는 시민들의 차량이 뒤엉키면서 교통지옥으로 전락, 운전자들

의 원성을 산 것이다. 물건을 사지 않는 주민들은 인도를 걷기 불편하다며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먼지와 비바람을 막으려고 설치한 천막은 도심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제는 서구청이 대대적인 단속 방침을 세우게 된 원인이 됐다.

서구는 지난 1월부터 금요일시장이 열리는 구간 곳곳에 단속 예고 현수막을 붙이고 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상인들을 찾아가 단속 대상과 정비 방침을 알렸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행위, 천막을 치고서 장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1㎡당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구가 지난달 19일부터 ①구간 노점상인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자 이곳 상인 50여 명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버렸다. 과태료 폭탄을 우려해 오랜 기간 장사

했던 곳을 피해 단속의 칼끝이 무더지기만을 기다리던 상인들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단속 방침을 밝히자 이날 서구청을 찾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상무 금요일시장 노점상인회 김판호 회장은 “주민 불편이 있다면 장사 공간을 더욱 좁혀서라도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주변에 쓰레기 한 점 없도록 치우고 또 치우겠다”면서 “상무 금요일시장이 20년 이상 이어져왔고 시장 폐쇄를 반대하는 주민 서명만 4000명이니 함께 힘을 합쳐 광주 도시의 명물 시장을 키워보자. 대화로 풀어가자”고 말했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천막을 치거나 차량을 이용해 장사하는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는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조그만 좌판을 펴고 장사하는

■ 광주 상무지구 금요일시장 노선도



상인은 단속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상무지구 금요일시장 노점상인 20여명이 24일 광주 서구청을 찾아 일방통행식 노점상 단속을 멈추고 상인들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자고 촉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총장 선출 방식 놓고 하세월... ‘우유부단’ 조선대 이사회

2인 후보 추천만 결정... 다음달 21일 재논의키로

조선대 이사회가 차기 총장 선거와 관련, 선출 방식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고 재차 미루면서 대학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개교 70주년을 맞는 대학 위상을 감안하면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치는 공간을 만들기는 커녕, 선출 방식조차 조속하게 결정하지 못하면서 이사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선대 이사회는 24일 학교 이사장실에서 8명의 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총장선출 방식에 대해 논의한 뒤 ‘구성원들의 투표로 2인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임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다만, 투표에 참여할 구성원 숫자는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참여 인원수에 따라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를 유지하게 될 지, 선거인단 형태의 간

선제 선출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이사회는 또 9명으로 구성된 자격 및 심층면접 심사위원회를 꾸려 총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유명무실했던 기존 자격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시켜 심층면접을 거친 ‘컷오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사회가 차기 총장 선출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데 따른 무책임함으로 학내 혼란이 커지

게 됐다. 우려도 구성원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조선대 이사회가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선출’ 방침과 국가 지원 사업 불이익 등을 내세워 직선제를 요구하는 교수평의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사회 불신임 등의 사태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조선대 이사회는 다음달 21일 총장 선출 방식을 재차 논의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9, 해질 18:48, 달뜨기 20:24, 달지기 07:24

아침·저녁엔 쌀쌀해요. 대체로 맑겠으나 동부권은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Regional weather forecast table for various Korean cities including Gwangju, Seoul, and Busan.

Sea and tide forecast table for Gwangju, including wind direction and speed, and tide times.

Hourly weather forecast table for Gwangju, showing temperature and weather conditions for each hour.

7-day weather forecast table for Gwangju, showing daily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s.

‘미숙 행정’ 광주시교육청

20여일만에 인사 철회...64월 누리예산도 편성 못해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하고 미숙한 교육 행정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조래 개정 절차도 없이 인사 발령을 냈다가 뒤늦게 번복하는 인사 무능(無能)을 드러내는가 하면, 4월 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을 3월 임시회 기간(17~29일)에 편성하지 않은 무책임함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의회와의 ‘선제적 소통’ 부재로 필요 이상으로 사태를 키워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 A 원장을 지난 22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직위 신설로 ‘정원 관련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시의회측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인사 발령을 냈다가 20여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애초 교육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징계를 받은 전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A 원장을 ‘영전’ 시켰다는 점에서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무능함을 드러낸 데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4월분 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을 3월 임시회 기간(17~29일)에 편성하지 않은 무책임함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다음달 임시회 때 어린이집 예산과 연계될 경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데, 그나마 통과되더라도 5월 초 이후에야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입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에 대한 아쉬움이 적지 않다.

구,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A 원장을 ‘영전’ 시켰다는 점에서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무능함을 드러낸 데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4월분 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을 3월 임시회 기간(17~29일)에 편성하지 않은 무책임함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의회와의 ‘선제적 소통’ 부재로 필요 이상으로 사태를 키워 혼란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 A 원장을 지난 22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직위 신설로 ‘정원 관련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했음에도 시의회측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인사 발령을 냈다가 20여일 만에 철회한 것이다.

시교육청이 애초 교육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징계를 받은 전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A 원장을 ‘영전’ 시켰다는 점에서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무능함을 드러낸 데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4월분 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안을 3월 임시회 기간(17~29일)에 편성하지 않은 무책임함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the 18th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featuring colorful graphics, photos of children, and event details: 2016 4.29.(금) - 5.8.(일) 10일간 함평엑스포공원.